

어린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충

요충은 예나 지금이나 기생충 감염율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여겨진다.



주 경 환

무더운 여름밤, 한 낮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를 수 있을 만큼 달아오른 대지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곤 한다. 허기야 집안에 온도조절장치를 해 놓고 4철 없이 같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집이 없을 법도 없겠으나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본 적도 없는 일일 뿐더러 우리 실정에 아직은 있어서도 안될 일일 것이다. 이런날은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심하게 보챌거나 울어대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는데 이럴 때 어린이의 항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얗고 작은 벌레가 육안으로도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벌레는 소위 요충이라고 부르는 기생

충의 암놈이 알을 낳기위해 항문 밖으로 나온것으로 항문을 가렵게 하여 어린이들을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정서불안상태로 만드는 아주 고약한 벌레인것이다.

요충은 여러 기생충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작아 암놈은 길이 10mm정도, 숫놈은 2~5mm의 핀처럼 생긴 흰색의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주로 맹장에 살며 암놈은 밤에 항문으로 기어나와 항문주위에서 알을 낳고는 대개 죽는다. 여자인 경우에는 질내에까지 들어가 산란하는 경우도 있으며 암놈 한마리가 평균 11,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한다. 요충은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찌기 기원전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알려진 기생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이래 기생충관리사업이 건강관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펼쳐져서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의 기생충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박멸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요충은 예나 지금이나 기생충감염률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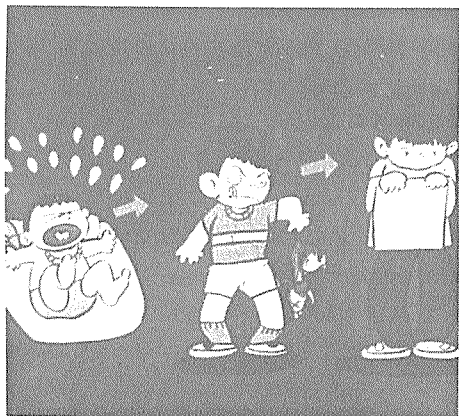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요충의 관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①감염경로가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이 흙을 통해, 그리고 음식을 거쳐 감염되는 반면 요충은 감염경로에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있어서 직접적으로 보다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과 ② 다른 기생충 질환이 대변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되는 반면 요충증은 대변검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쉽게 진단이 안된다는 것 ③이러한 난점때문에 요충의 관리는 자연히 뒤로 미루어 지고 증상자체도 항문이 가려운 것 이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충은 어떻게 해서 감염되며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요충은 주로 입을 통해 감염된다. 항문주위에 암놈이 기어나와 낳은 알은 6시간 정도 지나면 감염성을 가진 충란으로 성숙하게 되고 이러한 충란은 이불, 팬티나 잠옷 등에 묻었다가 방바닥에 떨어져 먼지와 같이

음식물에 붙어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오거나 항문이 가려워서 긁을 때 손톱 사이에 묻었다가 입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조사에 의하면 충란이 침구나 침실바닥, 목욕탕, 침실내의 먼지, 학교교실의 먼지, 손톱안의 때 등에서 발견되며 항문에 묻은 알은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틀이 지나야 탈락된다고 한다. 따라서 요충의 감염은 주위에 요충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대개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요충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집안 식구 모두가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요충은



■ 아이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보챌때 항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얗고 작은 벌레가 육안으로도 보인다.

어른 보다는 어린이에게 잘 감염되며 피해도 크다. 항문이 가려운 것을 방치해두면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신경질적이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며,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신체 발육이나 지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아동들을 조사해보면 요충에 걸린 아이들이 요충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 보다 체격이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요충이 항문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자의 질내로 들어가기도 하며 그것 때문에 음문이 가려워서 손이 가다보면 수음의 습관이 생길

■ 요충은 대변검사로도 잘 진단되지 않는다. 학생검변의 결과를 보면 요충감염자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한 학급의 20~30%가 요충감염자다.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중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월경중에 패드에 묻은 요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의 질 속에 벌레가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매일 구충제를 먹는 정신질환상태로 발전한 예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 여학생은 거의 2개월 가량 구충제를 매일 먹고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보다 비싼 값의 외제 구충제를 막연히 찾다가 필자의 근무처에 까지 오게 된 것인데 부모와의 약속하에 아주 비싼 외제 약품이라고 속여 영양제를 투여하였지만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를 못했었다.

그 밖에도 항문이 가려워서 긁다보면 만성 습진이 생기는 수도 있고 요충의 자극으로 직장의 괄약근이 자극을 받아 수축되어 지속적인 근육과로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잠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야뇨증이 생기기도 한다.

요충의 진단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변검사로도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검변 등의 결과를 보면 요충에

감염된 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1학급학생의 20~30%는 요충에 감염되어 있고 도시의 변두리지역이나 그 밖에 위생상태가 평균이하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은 70~80%가 감염되어 있다고 본다.

요충의 치료는 요충의 생활사에서 볼 수 있는 특징때문에 전 가족이 또는 한 집단모두가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요충의 특이한 생활사 때문에 가족 구성원중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곧 재감염되어 근본적 치료가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감염의 방지를 위하여 가족 전원이 동시에 구충제를 먹을 필요가 있다. 또 집단치료시에는 속옷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이부자리는 햇볕에 말려 재감염의 가능성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행히 치료제는 우수한 것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적인칙을 지켜 치료하면 요충 없는 가정, 요충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